

## 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10년 11월 16일(화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, 그 방안은?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, 「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」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개최
- 선진국 모범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성폭력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논의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주 관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10년 11월 16일(화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aeri@kwi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www.kwdi.re.kr)은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「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」을 주제로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.

## [아동성폭력 예방 국제컨퍼런스]

- 주제 :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
- 일시 : 2010. 11. 18. (목) 09:30 ~ 17:30
- 장소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
- 주최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## ※ 해외초청 발제자 미디어 취재 지원 안내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국제컨퍼런스 참석차 내한하는 해외발제자인 데이빗 코원과의 인터뷰를 주선할 예정입니다.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.

홍보담당 황애리(3156-7296)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「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」을 주제로 아동성폭력 예방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.
-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미국, 홍콩,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 선진국의 아동성폭력 예방 및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아동성폭력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법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.
-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크게 3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.
  - 제 1 세션에서는 데이빗 코원 미국 유타주립대 의과대학교 교수가 “지난 40년간 미국의 아동성학대 문제의 발견, 전문화 및 제도화”를 주제로, 페트리샤 입 홍콩 유니티드 크리스찬 병원 소아과장

이 “아동성학대 이슈에 대한 홍콩의 인식과 대응”을 주제로 발표한다.

- 제 2 세션에서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“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”을 주제로, 케이스 카우프만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“상황적 예방 모델: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만들기”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.
- 제 3 세션에서는 스티브 허먼 하와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“아동성학대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모범사례”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.
- 토론자로는 박지선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,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교육부 교수,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,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, 정운선 경북대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겸 대구경북해바라기센터 소장이 참여한다.

□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“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, 국내 아동성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예방책 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.

□ 한편,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아동성폭력 예방 등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 수행중이다. 2010년 연구는 아동성폭력 실태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.

\* 별첨 1. 해외초청자 프로필 및 주요 발표내용  
별첨 2. 프로그램

## 별첨 1. 해외초청자 프로필 및 주요 발표내용

데이빗 코윈(미국 유타주립대 의과대학교 교수)

### □ 프로필

데이빗 코윈 박사는 현재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PCC센터 (Primary Children's Center for Safe and Healthy Families)의 메디컬 디렉터이자, 유타주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소아과 내 소아보호 및 가정보건분과장을 담당하고 있다. 정신과/소아정신과/법정 정신과 분야의 공인 전문의인 코윈 박사는 8년간 유타 아동 및 가정 서비스국 위원회(Board of the Utah Division of Child and Family Services, DCFS Board)와 유타 주 아동보호를 위한 자문단(State Advisory Board on Children's Justice)에서 활동했다. 그는 유타 아동학대예방 전담반 운영위원회(Steering Committee for the Utah Child Abuse Prevention Task Force)의 창립 회원이자 의장직을 역임했으며, 본 전담반의 권고안들을 수행하기 위해 DCFS 위원회가 마련한 유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임시활동 위원회(Utah Child Abuse Prevention Interim Action Committee)의 공동의장직을 맡아 활동했다. 코윈 박사는 현재 유타 주지사 아동 및 가정 협의회(Governor's Child and Family Cabinet Council)에서 활동하고 있다.

### □ 주요 발표 내용

-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아동 성적학대의 발견, 전문화 및 제도화의 노력과 진전에 대한 문헌연구 발표
  - 1940년대 이전: 아동 성적 학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여성의 히스테리라는 입장(따라서 피해자 남성의 무고를 주장)
  - 1970년대: 아동 성적학대에 관한 새로운 접근에 따라, 1976년 미국 모든 주에서 아동 성적 학대 신고 의무화 정착
  - 1980년대: 전국 아동연맹, 아동 성적 학대 법정평가에 관한 AACAP 가이드라인 등 전문적인 가이드라인 마련
  - 1990년대: 아동성학대 증명에 있어서의 남은 문제들
  - 2000년 이후: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 본격화. 의료전문가 교육의 확대,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연구증진과 대처 방안 마련.

## 별첨 2. 프로그램

## <프로그램>

09:30 - 10:00	등 록
10:00 - 10:20	<p><b>개회식</b></p> <p>사회 : 윤덕경 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)</p> <p>환영사 : 김 태 현 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)</p>
제 1 세션	사회 : 장미혜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10:20 - 12:10	<p>발표 1 지난 40년간의 미국의 아동성학대 문제의 발견, 전문화 및 제도화 데이빗 코원(미국 유타주립대 의과대학교 교수)</p> <p>발표 2 아동성학대 이슈에 대한 홍콩의 인식과 대응 페트리샤 입(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병원 소아과장)</p> <p>토론 1 박지선(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)</p> <p>토론 2 이현혜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교육부 교수)</p>
12:10 - 13:40	오 찬
제 2 세션	사회 : 이수정(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)
13:40 - 15:40	<p>발표 3 아동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이미정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)</p> <p>발표 4 상황정 예방 모델: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 케이스 카우프만(미국포틀랜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)</p> <p>토론 3 이현숙(탁틴내일 상임대표·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)</p> <p>토론 4 이경훈(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)</p>
15:40 - 16:00	휴 식
제 3 세션	변화순(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16:00 - 17:00	<p>발표 5 아동성학대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모범사례 스티브 허먼(하와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)</p> <p>토론 5 정운선(경북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·대구경북북해바라기센터 소장)</p>
17:00 - 17:30	종합토론
17:30	폐 회

##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[www.kwdi.re.kr](http://www.kwdi.re.kr)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